

2023년 9월 3일(주일) 제1646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김승록 장로)는 202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23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봉사에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장학금은 이순례 권사님이 기증하신 순례장학금과 고 임광식 장로님 가정에서 기증하신 광림장학금, 김복녀 권사님이 기증하신 브리스길라장학금과 고 백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기증하신 송암장학금, 이



2023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이번 수여받는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선발된 모든 학생은 찬양예배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일반 및 순례장학생 6명(서울교회)
일반장학생:문영주 옥유진 장해라
순례장학생:김상윤 소 준 정서현
- 송암 및 브리스길라장학생 12명 (교역자/선교사 자녀 신학생)
송암장학생:장하늘 유성혁 유성결 허성강 허평강 양수빈 서폴라
브리스길라장학생:김수연 김예지 손주찬 배인혜 김가은

- 광림장학생 5명(호산나)
호산나대학:김은선 최연주 박수진 윤승우 노규미

렇게 모두 네 종류의 기증 장학금으로 수여됩니다.

앞으로 관심 있으신 보다 많은 분들의 기증 참여로 장학금 재원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0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3년 네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3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

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례자:김경민 김우형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위로의 하나님

(고후 1:3-11)



손달익 위임목사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 개인적인 고백이나 간증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겪은 많은 박해와 고난과 인생의 비애에 대하여 진솔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합니다. 바울에게 지워진 인생 짐은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순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두려웠고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감당 못할 고난의 삶을 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바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도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3,4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할 만큼 인생들에게는 상처와 고통, 눈물과 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위로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집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고통의 짐을 홀로 감당 못하는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토설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둘째는 자기의 마음 안에 깊고 은밀한 죄가 있음을 깨닫고 통절하고 가슴이 미어지게 회개를 합니다. 자기 부족에 대한 애통함이 그 첫째로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애통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 못할 마음의 짐이 무거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 얻도록 늘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곁에 계시며 죄인임을 애통하며 고백하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2. 위로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갈급하게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고통과 눈물 때문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4절). 자연인으로 산다면 우리는 자기 짐도 감당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는 사람에게는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8-9절). 살아남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절망적이 되었을 때,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살아갈 길을 여시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던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날도 주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행 23:11). 위기 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 바울은 천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고 애통하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위로하는 자 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 능력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함으로 구하고

그 위로의 힘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

모든 이들의 위로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3. 환난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은 인생의 순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때로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하고 짝지 인생의 무게가 태산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고난이 겹쳐서 올 때는 세월이 멈춘 듯하고 세상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은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인생의 길이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 임재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므로 인생의 길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건지시고 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함으로 구하고 그 위로의 힘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 모든 이들의 위로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문제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괴로움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제자로 사는 길이 평탄하고 무사안일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바른 길로 걷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현연할 수 없는 거룩한 위로가 우리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넘칠 것입니다.

참~ 쉬운 2023 바자 온라인몰



장창수 안수집사
(2023 바자위원회
차장)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서울교회 바자가 열리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바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온라인 바자”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바쁜 일상과 개인 사정으로 바자에 직접 참여가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몰을 통한 바자도 병행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울교회 젊은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전통행사인 바자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몰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https://yujung0429.cafe.com> 접속
- 2)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 3) 회원가입 후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클릭
- 4) 물품의 이미지를 클릭



5) 이미지 아래에 상품 문의를 클릭

6) WRITE를 클릭하고 글 작성 - 예를 들어 “사과를 한 박스 구매하겠습니다” 작성하고 등록.

온라인으로 구매 신청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결제 후 8층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바자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서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주님께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장해라 성도
(청년부)

분쟁과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시점에 두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과 코로나로 인해 정체성을 잃었던 유·초등부 연합찬양대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시절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배웠던 찬양들이 10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입에 맴돌며 찬양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됩니다. 성인이 되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학생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이 나이 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사명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찬양팀의 부흥이었습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교회에서 보낸 어린시절에, 함께 놀아줄 청년 선생님들이 안 보이던 시간은 3부 예배 때였습니다. 그 시간 선생님들을 찾으러 본당에 가면 예배에 앞서 기타를 치며 팀원들과 함께 본당 무대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문 앞

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나도 저 본당 무대에서 찬양을 드리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때 분쟁을 겪으며 두렵고 무서운 마음 만이 앞서 교회에 많은 부서들과 행사들이 축소되는 것을 실감할 때 저 두 가지 뿐만이 아닌 많은 것들이 ‘지나간 것, 한 때의 추억’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려워 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실감합니다. 두 가지 소망, 보다 더 한 것들을 이루시는 데에 역사하셨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를 통해 더 큰 부흥을 꿈꾸게 하십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학업에 몰두하며 앞날을 위해 취업과 진로 고민을 주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같은 대학생이고 같은 고민을 할지라도 크리스천인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며 학업 스트레스와 부딪혀 생기는 역경으로 신앙 선배들께 많은 도움을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통해 해결의 답이 아닌 ‘내가 하

나님을 의심한 거다.’라는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보다 나의 일을 앞세우는 건 분명히 교만한 짓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3부 예배를 포함하여 여러 변화들이 있었고 어김없이 학업에도 충실하였지만 단 한가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가장 우선 순위로 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학업에 있어 가장 바쁜 시기에 진행되는 흥해작전 기간 동안에는 3주간 밤새 시험공부를 하다가 새벽 5시가 되면 교회로 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라며 또 다시 의심을 연발하다가도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더 크게 부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크게 쓰임 받기 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하반기와 앞으로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러한 믿음들이 쌓여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세대가 부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서울교회, 구별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 청년예배와 반주하는 장해라 성도(중양)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전도위원회(위원장:차영도 장로)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강사는 홍천 도심리교회의 홍동완 담임목사님이셨습니다.

청년부 임원 수련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김재령 성도
(청년부 부회장)

저희 청년부는 지난 8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서울교회 청년부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현종필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8명의 임원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임원 수련회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평소 수련회를 하던 아가페타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산적인 문제와 임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조율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우려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외의 모든 것들도 계획했던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의 친구들과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눌 수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선물을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개개인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울교회 청년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하는데 새벽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진행된 큐티와 이틀 동안의 저녁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저희 임원단에게 정말 대비와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기도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외의 진행된 모든 활동을 통해 서로 더 친밀해지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말씀으로 하나되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청년부를 지켜보고 계시고 청년부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부 임원 수련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청년부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운동과 기독교 (3) - 기여와 의미



평화로웠던 제암리교회(왼쪽)와 학살 후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은 제암리교회(가운데, 오른쪽)

3.1운동은 한국기독교 초기 민족운동의 절정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3.1운동에 비견될 만큼 기독교가 민족사에 기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많은 학자들은 3.1운동에서 한국기독교의 기여를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운동의 네트워크 제공이고 둘째는 사후의 수난 감내이다.

종교가 민족운동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식민지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체로 종교는 마지막까지 식민지배 세력이 장악하기 어려워하는 사회적 조직체이다. 따라서 종교조직은 식민권력의 눈을 피해 민족운동을 추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곤 한다. 나치 독일의 식민지배하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운동이 정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그 일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은 식민지배 세력의 주류 종교와 가장 거리가 먼 종교가 맡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크라이나의 정교회는 루터회를 국교로 하는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는 민족운동의 중심이었지만 같은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 역할을 상실하였다. 3.1운동이 민족종교인 천도교와 서양에서 새로 유입된 기독교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주류 종교인 신도와 두 종교의 문화적 종교적 세계관이 상극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로회의 총회 → 노회 → 시찰회 → 당회로 이어지는 조직망, 감리회의 연회 → 지방회 → 구역회로 연결되는 조직망은 3.1운동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채 진행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여기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 전국에 포진해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다. 3.1운동의 정보가 한국교회의 조직망을 통해 전국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역 중에 주동세력이 뚜렷한 지역은 311개로 압축되는데 이 중 기독교 단독이 78개 지역, 천도교와 합작이 42개 지역이다. 25-38%의 지역에서 기독교 주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정보와 사람의 통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기여인 사후의 수난 감내는 실패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의 문제이다. 3.1운동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긴 역사의 호흡으로 보면 3.1운동은 세계가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단한 성공이다. 하지만 짧은 호흡으로 보자면 민족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난 일제의 탄압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3.1운동을 불온한 한국인들의 소요사태로 인식하고 살벌한 보복 학살과 주동자 색출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3.1운동은 실패라 할 수 있다.

실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일제는 3.1운동의 주동 세력의 하나로 기독교를 지목하였다. 수원의 제암리교회, 인근의 수촌리교회와 화수리교회, 평남의 강서반석교회와 맹산교회, 만주의 노루바위교회 등은 모두 일제의 보복을 받았다. 기독교가 주된 탄압의 대상

이 되었던 것은 피검자 통계로도 증명된다. 당시 체포된 사람의 22%, 투옥된 사람의 17%가 기독교인이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1.3-1.5%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던 천도교의 피검자가 2,268명인 반면 기독교 피검자는 3,06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체포와 투옥이 없었던 나을 수 없는 수치이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에 기여이 동참하였다.

한때 한국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모두 1907년의 대부흥으로 신앙이 개인화·내면화되면서 한국교회의 몰역사적이고 비민족적인 성향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던 적이 있었다. 낡은 역사 해석이다. 그런 시각으로는 12년 뒤에 일어난 3.1운동에서 한국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민족대표에 참여한 기독교 인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족운동가로 활동해오던 사람보다 전적인 종교 지도자로 분류되던 목회자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사회참여 신앙과 개인구원 신앙으로 양분화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세상에 대한 책임감, 불의에 대한 저항의지, 이웃을 위한 희생정신이 강해지는 법이다.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는 신앙으로 무장한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이야 어찌되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곧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일지 모른다.



스데반회 특강

조형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일시 : 9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홀
- 강사 : 전광영 은퇴 안수집사
- 강사 약력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원 회화과
2009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미술부문 대통령상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1974년 영국 제 27회 첼튼엄 현대미술작가전 은상

식사 제공

- 9교구 지성철 집사 유모종 권사 가정(범사에 감사드리며)
- 교회 제공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1시-2시)	수요일	전도회 (1시-2시)	토요일	선교회 (1시-2시)
				9/2	빌립 안드레 베드로
9/3	자원자	9/6	도르가 루디아 비외	9/9	바울 엘리야
9/10	자원자 마리아	9/13	한나	9/16	모세
9/17	자원자	9/20	에스터	9/23	바자
9/24	자원자	9/27	리브가		추석 연휴

2023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성경대학**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에스라-느헤미야	화, 오전 10:30-12:00	9.5-10.31(8주)	최종국 전도사	602호
신약의 파노라마	금, 오전 10:30-12:00	9.8-11.3(8주)	장석남 목사	603호

*** 열린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9.10-11.12(10주)	강남희 전도사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9.7-11.9(10주)	박미라 전도사	101호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9월4일	월	겔 28-30		9월4일	월	대하 1-9	
9월5일	화	겔 31-33		9월5일	화	대하 10-20	
9월6일	수	겔 34-36		9월6일	수	대하 21-29	
9월7일	목	겔 37-39		9월7일	목	대하 30-36	
9월8일	금	겔 40-42		9월8일	금	스 1-5	
9월9일	토	겔 43-46		9월9일	토	스 6-10	
9월10일	주일	겔 47-48		9월10일	주일	느 1-7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가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 2023 가을 성경대학과 열린프로그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의 바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전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